

부부의 속박감과 복종 및 분노조절 방식이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권 호 인

이 소 영

권 정 혜[†]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삼성전자 열린상담센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외적 속박감, 복종 행동, 분노 경험 및 분노 표현 방식이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이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인 화병의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 75쌍으로, 부부 각자에게 속박감과 복종, 분노 조절에 대한 자기보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화병 증상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는 외적 속박감, 복종 행동, 분노 억제, 남편의 경우에는 외적 속박감, 복종 행동, 특성 분노, 상대분노, 분노 표출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상대 상호의존 모델을 사용하여 경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외적 속박감은 화병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인의 분노 억제, 남편의 분노 표출을 매개로 화병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종 행동은 외적 속박과 유의한 관련을 가지지만, 남편의 경우에만 화병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부의 각기 다른 분노 조절 방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외적 속박감을 어떻게 다루어 줄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화병, 외적 속박, 분노표현, 분노억압, 부부

[†] 교신저자: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3290-2067, Fax: 02-3290-2537; E-mail: junghye@korea.ac.kr

화병은 한국인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1990년대 중반에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1994)에 등재된 이래, 대중과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화병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화병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년 이상의 기혼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남편과 시부모와의 관계 등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과 가난과 고생, 사회적 좌절 등 성장 이후의 외적 요인에 의한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등의 감정이 불완전하게 억제되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는 만성적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민성길, 김진학, 1986; 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1990).

화병의 병인이 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는 배우자, 시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표진, 황의완, 1996; 민성길, 1989; Park & Kwon, 1999). 보다 최근에 신혜숙과 신동수(2004)는 화병의 원인을 조사하고 과거와는 달리 고부간의 갈등이 크게 대두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분가로 인한 시대과의 교류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즉 화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분노 유발 스트레스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가족 문제, 특히 부부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국내 가족 문화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 점차적으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는 화병의 발병과 유지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병을 유발하는 정서는 주로 억울함 혹은 분노로 간주되며(민성길, 1991; 김종우 등 1996), 분노가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설움, 좌절, 환멸 등 복잡한 정서 상태로 표현된다. 분노 경험 뿐 아니라 분노의 억제 또한 화병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간주된다(민성길 등, 1990). 즉 동일한 갈등 상황에 장기간 처해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심리적 불편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과정이 화병을 유발하는 독특한 병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병에 포함된 정서 경험과 그 표현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맥락에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Mabel, 1994), 그에 대한 평가와 대처 기제(Lazarus, 1991), 사회적 맥락(Averill, 1982; Cohen, Vandello, & Rantilla, 1998), 개인적 특성(Mikulincer, 1998)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화병이 가족, 특히 부부라는 대인 관계에서 주로 유발되는 만큼, 분노 행동을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포괄하여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외적 속박감이 분노 억제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Gilbert & Allan, 1998). 외적 속박감은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도피가 차단되어 있다고 지각하면서 구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Dixon, 1998; Gilbert, 2000). 특히 관계 내에서 속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이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우울감이나 무망감 뿐 아니라 분노 억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Gilbert & Allan, 1998). 만일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이고 진행형이라면 속박감은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에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Brown, Harris, & Hepworth, 1995). 국내의 부부 관계는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상사와 부하 사이

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즉, 긍정적으로는 관여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관계 내에서 속박감을 느낄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한다면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며(Folkman, 1984), 이에 따라 심리적 불편감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화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적 속박감을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화병 환자들이 보이는 주요 인지적 특징으로 스트레스의 원인 및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면서도 자신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Park & Kwon, 1999).

한편 우울증의 사회 지위 이론(social rank theory)에서 제안한 복종 경향성 역시 분노 조절과 관련된 변수로 제안된 바 있다. 복종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지각한 후, 갈등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 굴종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rice & Sloman, 1987). 이 전략은 내재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따르도록 촉진하며(Taylor, Gooding, Wood, & Tarrier, 2011), 자기 주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 병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Allan & Gilbert, 1997; 2002).

우리나라의 부부 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하에 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

으로서 집안의 중심이 되는 가족구조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 부부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부인은 양보하고 순종하며 불편감을 감내할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한국 사회는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의식 구조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남녀에 대한 인식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김중우, 1997).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정 내 경제적 주도권을 아내가 갖는 경우가 늘어날 뿐 아니라,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다는 남편의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은(중앙일보, 2005) 한국 기혼남성의 가족 내 현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화병 클리닉을 찾는 전체 화병 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은 IMF이전의 10% 수준에서, 2003년에는 30%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문화일보, 2003), 화병은 더 이상 중년 여성의 질환이라고만 볼 수 없다.

화병 환자들은 흔히 가족 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며, 순응적이고 참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민성길, 박철산, 한정옥, 1993). 이와 같이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복종적 경향성은 높고,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한다면 개인의 상황을 통제 불가능하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Gilbert & Gilbert, 2003; Williams, 1997). 여성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기혼 남성들 역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훈육을 받아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툰 경향이 있다(김중우, 2006). 최근 약화된 남성의 가족 내 지위를 감안하면, 남편의 속박감 뿐 아니라 분노 억제가 화병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병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병이 일어나는 부부 관계 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분노 억제와 화병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민성길, 1990, 김중우 등 1996), 이 기제가 부인의 화병 증상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분노 정서와 더불어 관계 내에서 분노의 표현 및 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속박과 복종 경향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부가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분노나 억울함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보고, 이를 포함하여 화병의 독특한 병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남편과 부인의 외적 속박감과 복종 행동, 상태 분노는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남편과 부인의 외적 속박과 복종 행동, 상태 분노는 분노 조절을 매개로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배우자와의 상호 관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배우자의 심리특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활용하여 각 배우자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고려하여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소재 K대학 부부 상담 센터에 내원하였거나,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인 정서 상태 및 부부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연구’라는 설명 하에 개별적으로 모집된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부부 75쌍이었다. ‘기혼자’인 경우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배제 조건은 없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 동의서를 읽고 확인하였고 서면으로 연구에 동의하였다. 남편의 평균연령은 42.05세(표준편차 8.17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39.57세(표준편차 7.81세)였다.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3.19년(표준편차 9.30년)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외적 속박 척도(The External Entrapment Scale)

외적 속박척도는 외적 상황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문항 예; 나는 의의감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낀다)를 측정하기 위하여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였으며, 권정혜, 이소영(2008)이 국내 부부에게 적합하도록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80 이상이었으며(Gilbert & Allan, 1998),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복종 행동 척도(The Submissive Behavior Scale)

복종 행동 척도는 Buss와 Craik(1986)이 개발한 일반적인 복종행동을 묻는 16개 문항으로

표 1.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편 (n=75)	부인 (n=75)	
부부 개별 특성	교육수준	무학	-	
		초졸	1(1.3)	
		중졸	-	
		고졸	8(10.7)	
		전문대졸	1(1.3)	
		대졸	43(57.3)	
		대졸이상	22(29.3)	
	missing	-	1(1.3)	
	직업	전문직	25(33.3)	14(18.6)
		관리직	6(8.0)	1(1.3)
		사무직	21(28.0)	4(5.3)
		판매서비스직	12(16.0)	5(6.7)
		생산직	1(1.3)	2(2.7)
		농어축산업	-	-
무직		1(1.3)	26(34.7)	
기타	9(12.0)	20(26.7)		
missing	-	3(4.0)		
부부 공동 특성	자녀수	없음	13(17.3)	
		1명	14(18.7)	
		2명	42(56.0)	
		3명 이상	6(8.0)	
	부부 · 자녀 외 동거인	시아버지	2(2.7)	
		시어머니	4(5.3)	
		장인	2(2.7)	
		장모	3(4.0)	
		시누이	2(2.7)	
		처남 · 처제	1(1.3)	
	경제수준	상	2(2.7)	
		중상	13(17.3)	
		중	45(60.0)	
		중하	10(13.3)	
하		5(6.7)		
가정 월수입	100만원 이하	2(2.7)		
	100~299만원	17(22.7)		
	300~399만원	21(28.0)		
	400~499만원	11(14.7)		
	500~999만원	21(28.0)		
	1000만원 이상	3(4.0)		

주. ()는 %임.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지 못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인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14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는 .85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검사(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분노 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Spieberger(1988)가 개발한 척도를 전경구(1999)가 타당화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였다. STAXI는 총 44문항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체 문항은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압(anger-in), 분노 표출(anger-out), 분노 통제(anger-control)의 5개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덕웅과 박준호(2003)가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상태분노 .92, 특성분노 .85, 분노억제 .79, 분노표출 .81, 분노통제 .83으로 나타났다.

화병 척도

본 연구에서는 권정혜, 박동건, 김중우, 이민수, 민성길, 권호인(2008)이 개발한 화병 척도 중 화병 증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화병 증상 척도는 4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저자들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권정혜 등, 2008).

화병 스크립트 평가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담은 분노유발 스크립트를 읽었다. 스크립트를 읽은 후 부부 간에 이런 일화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부부 간에 일어나는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화가 날 것인지를 10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노 스크립트

다음은 당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 후 밖에서 배우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장소로 가고 있는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알았다고 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데, 30분이 넘도록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십분 간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더니, 한 시간 가량 후에는 가고 있는 중이라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얼른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결국 배우자는 한 시간 반이 넘는 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고, 너무 늦어 중요한 부부동반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질문지에서 개인 및 부부 변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외적 속박 척도, 특성 분노 척도 등의 문항에 대한 설문에 응하였다. 이후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담은 짧은 분노 유발 스크립트를 읽은 후,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상태 분노 및 분노 조절, 복종 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크립트를 사용한 분노 연구 절차는

Allan과 Gilbert(2002)의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피검자가 보고하는 분노 경험이나 분노 조절이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는 결혼 생활에 국한되어 평가되도록 하는 절차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화병 척도를 실시하였다.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해 각 변인 간 상관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Test)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에 대한 남편과 부인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의 쌍 자료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를 사용하였다. APIM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효과(partner effect)를 통해 남편과 부인의 화병 증상에 대한 부부의 상호 의존성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화병 설명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3.0과 AMOS 5.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알려진 추정 오차의 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 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은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차이 분석

분노유발 각본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빈도(이런 상황이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상황유사성(이런 상황이 당신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항목에서는 부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유발분노(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에서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이 화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t=-2.09, p<.05$.

주요 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현재 간혀 있다고 느끼는 전반적인 외적 속박감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성 분노와 상태 분노 모두, 남편과 부인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분노 조절 방식에 있어서 분노 표출과 분노 억압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분노 통제 변인에 있어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표 2. 분노유발 스크립트에 대한 평가

1~10	남편(n=75)	부인(n=75)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빈도	2.60(2.00)	2.49(2.07)	.35
상황 유사성	2.49(1.73)	2.50(2.23)	-.02
유발분노	6.30(2.86)	7.21(2.46)	-2.09*

* $p<.05$.

표 3. 주요 변인에 대한 부부간 차이

	남편(n=75)	부인(n=75)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외적 속박	19.36(10.36)	21.75(13.56)	-1.45
복종	20.21(6.78)	20.67(6.99)	-.41
STAXI			
특성분노	20.28(4.20)	19.43(5.08)	1.29
상태분노	17.28(4.10)	17.85(4.23)	-.90
분노표출	14.64(3.13)	15.48(4.41)	-1.37
분노억압	16.55(3.35)	16.95(3.40)	-.81
분노통제	19.12(3.86)	17.65(4.03)	2.43*
화병 증상 척도	15.67(8.20)	18.71(10.96)	-2.20*

* $p < .05$

($t=2.43, p<.05$), 남편이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병 증상에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t=-2.20, p<.05$), 부인이 화병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에는 화병 증상 점수는 외적 속박($r=.65, p<.001$), 복종 행동($r=.40, p<.01$), 특성 분노($r=.24, p<.05$), 상태 분노($r=.33, p<.01$), 분노 표출($r=.24, p<.05$)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부인의 경우, 화병 증상 점수는 외적 속박($r=.65, p<.001$), 복종 행동($r=.40, p<.01$), 분노 억압($r=.38, p<.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병과 주요 변수의 관련성이 남편과 부인 간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인의 화병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남편의 변인은 남편의 외적 속박($r=.27, p<.05$)과 남편의 화병 증상($r=.25, p<.05$)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효과

상관 분석에서, 화병 증상과 유의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인들이 화병 증상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 개별 경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부인의 외적 속박감과 복종 행동은 각자 자신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편은 각각 $\beta=.65, p<.001$; $\beta=.40, p<.001$, 부인은 각각 $\beta=.64, p<.001$; $\beta=.40, p<.001$). 남편의 특성 분노와 상태 분노는 자신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각 $\beta=.24, p<.05$; $\beta=.31, p<.01$), 부인의 특성 분노와 상태 분노의 자기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남편								부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남편																
1. 외적속박	-															
2. 복종	.24*															
3. 특성분노	.07	-.17	-													
4. 상태분노	.20	-.13	.43***	-												
5. 분노표출	.18	-.18	.61***	.75***	-											
6. 분노억압	.00	.34**	.07	.12	.21	-										
7. 분노조절	-.17	.26*	-.39***	-.33**	-.32**	.29*	-									
8. 화병증상	.65***	.40**	.24*	.33**	.24*	-.01	.03	-								
부인																
1. 외적속박	.32**	.17	.12	.20	.18	-.21	-.11	.18	-							
2. 복종	.17	.03	.15	.18	.24	-.12	-.13	.14	.38**	-						
3. 특성분노	-.03	.07	.26*	-.04	.03	-.04	-.07	-.03	.07	.16	-					
4. 상태분노	-.02	-.13	.09	.15	.07	-.14	-.06	.16	.20	.05	.30*	-				
5. 분노표출	-.03	.00	-.02	-.07	.04	-.00	.14	-.02	.18	-.16	.18	.33**	-			
6. 분노억압	.25*	.23*	.03	.19	.14	.20	.33**	.16	.00	.12	.03	.32**	.05	-		
7. 분노조절	-.01	.14	-.12	.03	-.08	.16	-.00	.16	-.17	.07	-.27*	-.21	-.28*	.37**	-	
8. 화병증상	.27*	.02	.20	-.13	-.11	-.13	-.11	.25*	.65***	.40**	.03	.16	-.11	.38**	.18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화병 증상에 대한 각 변인의 자기 효과와 상대 효과

	외적 속박감		복종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압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자기효과	.65***	.64***	.40***	.40***	.24*	-.02	.31**	.12	.24*	-.12	.08	.42***
상대효과	-.02	.06	.13	.01	-.01	.21	.11	.24*	-.03	.18	.31**	-.21*

주. 수치는 β 값임.

* $p < .05$. ** $p < .01$. *** $p < .001$.

(각각 $\beta = -.02, m$; $\beta = .12, m$). 또한 남편의 상태 분노는 부인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 p < .05$; 상대효과). 남편과 부인의 분노 조절 양상이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반대로 나타냈는데, 남편의 경우 분노 표출이($\beta = .24, p < .05$), 부인의 경우 분노 억압($\beta = .42, p < .001$)이 자신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쳤다.

흥미롭게도 부인의 분노 억압은 남편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31, p<.01$; 상대효과), 남편의 분노 억압은 부인의 화병 증상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eta=-.21, p<.05$; 상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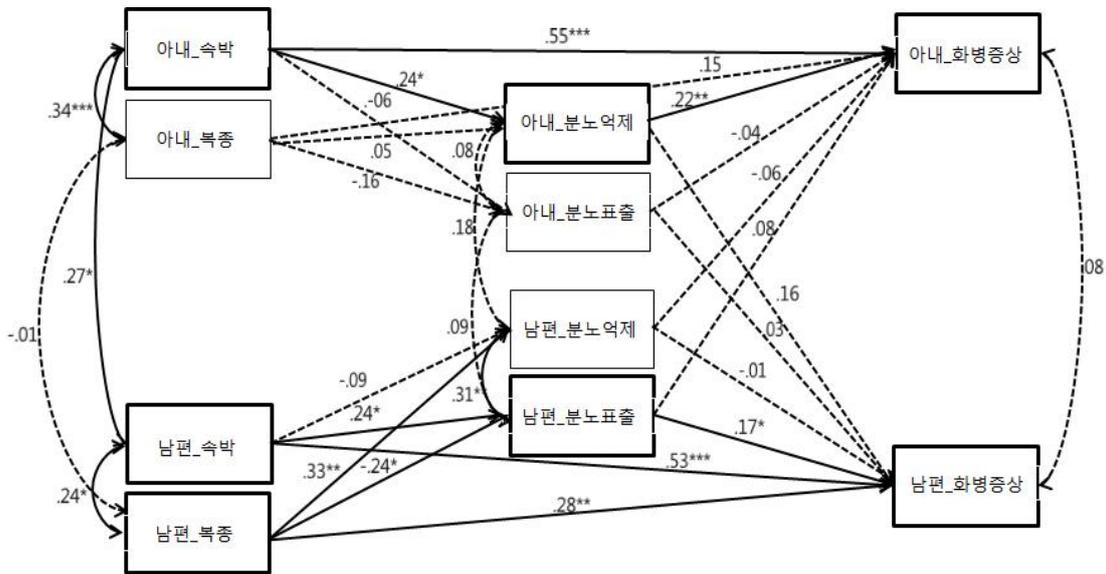
화병 증상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경로 모형

기존 연구에서 부부 단위로 화병 증상을 연구한 예는 전무하였으므로, 연구자의 가설과 사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편과 부인의 화병 증상에 대한 경로 모형을 탐색적으로 설정하고,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지속적이든, 상태적이든 분노 경험 자체는 부인의 화병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분노 조절 변수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각기 자

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적 속박감과 복종 행동이 분노 억압과 분노 표출을 매개로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경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FI는 .98, TLI는 .94, RMSEA는 .05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홍세희, 2000).

부인의 경우, 외적 속박감은 부인의 화병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분노 억제를 매개로 화병에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부인의 복종 행동은 자신의 외적 속박과 유의한 상호 관련성을 나타냈지만, 분노 억압에 대한 영향이나, 화병 증상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의 경우, 외적 속박감과 복종 행동은 모두 화병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외적 속박감은 분노 표출을 매개로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 $p<.05$. ** $p<.01$. *** $p<.001$.

주. 실선을 유의한 경로이며, 점선을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 남편과 부인의 화병 모형

표 6. 경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18.79	16	.28	.95	.98	.05

로 나타났다. 반면 복종 경향은 분노 억압에는 정적 영향을, 분노 표출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화병 증상에 대한 직접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외적 속박감, 복종 행위에 따른 분노 표현과 화병 증상 간의 관련성을 부부 단위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에 비해 화병의 발병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되어 있으나, 부부를 한 체계로 그 상호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화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 뿐 아니라 최근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분노 조절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는 외적 속박감과 복종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여 부부가 각기 가정 내에서 속박감이나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어떻게 표출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성이 화병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유발 스크립트에 대한 평가에서, 빈도와 유사성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유발된 분노 점수에 있어서는 부인의 분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함께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도

남편에 비해 부인이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반응성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을 시사하며, 여성이 정서적으로 더 반응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Barrett, Lane, Sechrest, & Schwartz, 2000). 그러나 향후 이러한 성차가 부부 관계의 맥락 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편과 부인은 외적 속박감, 복종 경향성,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남편은 부인에 비해 분노를 더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은 남편에 비해 화병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었던 전반적인 변인에서 남편과 부인 간에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 및 인지적 평가에 있어서 뚜렷한 성차가 없음을 시사하며, 한국의 부부 문화가 비교적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 부부였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상관 분석과 화병과 관련 있는 개별 변수에 대한 APIM 분석 결과, 부인의 화병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외적 속박감과

복종 경향, 분노 억제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화병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외적 속박, 복종 경향, 특성 분노, 상태 분노, 분노 표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가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처한 외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간혀 있다고 지각하는 외적 속박감과 자신의 상대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복종 경향성이 남편과 부인 모두의 화병 증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는 분노 경험 자체가 화병 증상을 의미미하게 설명하는데 반해, 부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경우에는 분노 자체보다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화병 증상의 발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말해준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고,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분노를 억제하게 되고 이것이 화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화병이 분노 억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지만(민성길, 1990, 1993), 상황에 대한 지각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이 조명했다는 점에서 화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분노 조절에 있어서도 남편과 부인 간 분명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부인의 경우에는 분노 억제가, 남편의 경우에는 분노 표출이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적이고, 외현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Nolen-Hoeksema, 2011). 이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분노 억제, 남성의 경우에는 분노 표출의 부정적 영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초기 분노와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분노 억제와 표출이 모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Finney, Stoney, & Engebretson, 2002; Chang, Ford, Meoni, Wang, & Klang,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 억제와 표출의 효과에 있어서 성별이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만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화병 증상을 연구한 기존 연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분노 표출이 특히 남성 화병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인의 분노 억제는 남편의 화병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분노 억제는 부인의 화병 증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억제가 가진 이 상반된 효과는 여성의 분노 억제가 자신의 화병 증상 뿐 아니라, 남편의 화병 증상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부정적 정서 조절 기제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남성의 분노 억제는 자신의 화병 증상에 부정적 영향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인의 화병 증상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관계 측면에서 순기능적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분노 억제의 영향에 대한 이 흥미로운 성차의 기저에 어떤 과정이 개입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남편의 분노 표출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편의 분노 억제는 분노 표출에 대항하는 적응적 대처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기제의 성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적 속박감과 복종 경향성이 분노 표현 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화병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모든 적합도 지수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은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분노 억압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편은 외적 속박감이 높을수록 분노 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속박감은 직접 화병 증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인의 분노 억제, 남편의 분노 표출을 매개로 화병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종 경향성은 외적 속박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외적 속박감과 상호 관련성을 통해서만 화병 증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복종 경향성이 직접적으로 화병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복종 경향성은 부인의 외적 속박감을 가중시키는 영향력이 중요한 반면, 남성의 복종 경향성은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화병 치료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분노 억압을, 남성의 경우에는 분노 표출을 완화시키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노 조절 훈련과 같은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병 모형을 살펴보면 분노 표현(분노억압, 분노표출)의 매개효과보다도 속박감의 직접 경로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분노표현만으로 화병 증상들을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들은 부부가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속박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사례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횡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은 확인하였지만 그 인과관계를 확실히 하는 어렵다.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접근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모집된 연구 대상의 평균 결혼기간은 13년 정도였다. 화병이 중년 이상의 기혼 여성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긴 결혼 기간의 부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병 임상 집단이 아니라 적절히 기능하는 정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화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를 단위로 화병을 연구한 첫번째 예비적 연구로서 부부관계 내에서 화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향후 화병 임상군을 대상으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가 관계 내에서 경험하는 속박감이 화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속박감이 부인의 경우 분노 억압을, 남편의 경우 분노 표출을 매개로 하여 화병에 이끈다는 모형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심리적 개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6). 임상심리학에서의 비교 문화적 연구: 정신 병리에 나타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세미나, 105-133.
- 권정혜, 박동건, 김종우, 이민수, 민성길, 권호인 (2008). 화병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37-252.
- 권정혜, 이소영 (2008). 부부의 외적 속박감 및 상대적 지위 지각에 따른 분노 표현과 결혼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69-84.
- 권호인, 김종우, 권정혜 (2009). 화병환자의 MMPI-2 프로파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79-395.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종우 (1997). 화병. 서울: 여성문화사.
- 김종우 (2007). 화병으로부터의 해방. 서울: 여성신문사.
- 김종우, 이조희, 이승기, 엄효진, 황의완 (1996). 화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 한의학적 화병 모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4(1), 23-32
- 김태현, 류영수 (1999). 전신체열촬영에 의한 화병환자의 임상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0(1), 133-146.
- 노종영, 김종우, 황의완 (1998). 불안, 우울, 분노 척도를 이용한 화병 환자의 임상 양태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9(2), 97-110.
- 문화일보 (2003. 11. 26). 남성들 '화병' 늘었다.
- 민성길 (1989). 화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 604-616.
- 민성길 (1991). 화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11), 1189-1198.
- 민성길, 김진학 (1986). 보길도에서의 화병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5(3), 459-466.
- 민성길, 남궁기, 이호영 (1990). 화병에 대한 일 역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9(4), 867-874.
- 민성길, 박청산, 한정옥 (1993). 화병에 있어서의 방어기제와 대응전략, 신경정신의학, 32(4), 506-515.
- 신혜숙, 신동수 (2004). 화병 여성의 원인 지각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283-290.
- 중앙일보 (2005. 4. 25). 요즘 남편들 셋 중 하나 "아내에게 구박당한다".
- 한덕웅, 박준호 (2003).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분노경험이 주관안녕과 건강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47-16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exander, R. G., & French, T. M. (1948). *Studies in psychosomatic Medicine: An approach to the cause and treatment of vegetative disturbance*. New York, Donald.
- Allan, S., & Gilbert, P. (1997). Psychopathology and submissive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467-488.
-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3), 551-565.

-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Washington DC, APA, 844-846.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ett, L. F., Lane, R. D., Sechrest, L., & Schwartz (2000). Sex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9), 1027-1035.
-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 (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gical Medicine*, 25(1), 7-21.
- Buss, D. M., & Craik, K. H. (1986). Acts, dispositions and clinical assessment: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condu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6(5), 387-406.
- Chang, P. P., Ford, D. E., Meoni, L. A., Wang, N. Y., & Klang, M. J. (2002). Anger in young men and subsequent premature cardiovascular disease: The precursors study. *Archives of International Medicine*, 162(8), 901-906.
- Cohen, D., Vandello, J., & Rantilla, A. K. (1998). The sacred and the social: cultures of honor and violence. In P. Gilbert, & P. Andrew,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261-2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ixon, A. K. (1998). Ethological strategies for defence in animals and humans: their role in some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4), 417-446.
- Finney, M. L., Stoney, C. M., & Engebretson, T. O. (2002). Hostility and anger expression i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en i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and lipid reactivity. *Psychophysiology*, 39(3), 340-349.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852.
- Gilbert, P. (2000). Varieties of submissive behaviour: evolution and role in depression. In L. Sloman, & P. Gilbert(Eds.), *Subordination and defeat. An evolutionary approach to mood disorders*(pp.30-45). Mahwah: Lawrence Erlbaum.
- Gilbert, P.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ogical Medicine*, 28(3), 585-598.
- Gilbert, P., & Gilbert, J. (2003). Entrapment and arrested fight an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using focus group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2), 173-188.
- Gilbert, P., Gilbert, J., Irons, C. (2004). Life event, entrapments and arrested anger in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79(3), 149-160.
- Kellner, Hernandez, & Pathak, D. (1992). Self-rated inhibited anger, somatization and depression.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7(3), 102-107.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bel, S. (1994). Empirical determinants of anger provoking characteristics intrinsic to anger

- provoking circumsta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2), 174-188.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513-514.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The role of gender. *Th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4(1), 19-40.
- Pang, K. Y. C. (1990). Hwabyung: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popular illness among Korean elderly im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Culture, Medicine and Psychiatry*, 14(4), 495-512.
- Park A. S., & Kwon, J. H. (1999, August). Conjugal stresses, attributional styles, and coping strategies of the Hwa-Byung and depression groups. *Post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7th Annual Convention*, Boston.
- Price, J. S., Sloman, R., Gardner, R., Gilbert, P., & Rhode, P. (1994). The social competition hypothesis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3), 309-315.
- Scott, J.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research edition.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orida.
- Taylor, P. J., Wood, A. M., Gooding, P., Johnson, J., & Tarrier, N. (2009). Are defeat and entrapment best defined as a single constru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7), 795-797.
- Williams, J. M. G. (1997). *Cry of pain: Understanding suicide and self har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 차원고접수 : 2012. 10. 17.

심사통과접수 : 2012. 12. 12.

최종원고접수 : 2012. 12. 24.

Hwa-Byung Symptoms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Submissive Behavior and External Entrapment in Married Couple

Hoin Kwon

Student Counseling Center
Korea University

So-Young Lee

Life Coaching Center
Samsung Electronics Co., Ltd.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in external entrapment, submissive behavior, anger and the anger expression and the roles these factors on Hwa-Byung symptoms. Seventy five married couples(75 wives and 75 husband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asked to fill out questionnaires about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whereas external entrapment, submissive behavior, anger suppress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Hwa-Byung symptoms in the wives, external entrapment, submissive behavior, state and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Hwa-Byung symptoms in the husbands. For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the actor effects, for external entrapments and submissive behavior of both spouses were significant, the actor effect for the husband's anger-out, and the actor effect for the wife's anger-in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whereas husbands' external entrapment affected their Hwa-Byung symptoms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ir anger-out, The wives' external entrapment affected their Hwa-Byung symptoms directly and indirectly by their anger-in. Therefore, further study needs to be done on how to deal with entrapment and anger expres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Key words : Hwa-Byung, external entrapment, anger expression, anger in, married couple